

Living the Lotus 9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4
VOL. 228



Members in the US, and from Japan, Join the 2024 Nisei Week
Grand Parade in Los Angeles, August 11



Photos: Richard Kano

Living the Lotus Vol. 228 (September 2024)

발행: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몬메디아센터3층

Tel: 03-5341-1124 / Fax: 03-5341-1224

E-mail: iiving.the.lotus.rk-international

@kosei-kai.or.jp

편집 책임자: 아카가와 케이치

편집장: 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편집 스태프: 국제전도부 스태프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넛교 개조님과 나가누마 모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법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법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마음을 갈아 부처를 발굴한다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 (庭野日鑽)



바라문(婆羅門)과 석존의 대화

본 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했던 해(1998년), 저는 ‘약진’(교성출판사)월간지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저도 소년 시절에 밭을 가는 일을 도왔습니다. 갈린 흙과 그렇지 않은 흙은 차이가 있습니다. 갈리지 않은 흙은 단단해서 아무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잘 갈린 흙은 부드러워서 물과 비료를 듬뿍 흡수합니다. 이와 같이 부드럽게 갈린 마음은 유연하고 집착이 없으며, 어떠한 일도 있는 그대로 흡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밭을 간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몇 번이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숫타니파타’에 담긴 석존의 일화와 계승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밭을 갈 준비를 마치고 농삿일을 돕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기 시작한 대지주 바라문이 탁발하러 온 석존을 보고는 매서운 말투로 묻습니다.

‘당신도 (땅을)갈고 씨앗을 뿌린 후에 음식을 얻으면 어떠신가?’ 그러자 석존께서는 온화하게 ‘나 또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더욱 의문을 품은 바라문에게 계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내가 뿌리는 씨앗이며, 단련이 비다.
지혜가 나의 쟁기이며, 부끄러움이 끝채다.
마음이 묶는 밧줄이며, 내성은 쟁기의 날과 막대기다.
몸과 말은 삼가고,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지 않는다.
진실을 지키는 것은 나의 풀베기다.
유연함은 소의 멩에를 벗는 것이다.

정진은 짐을 나르는 소이며, 안온의 경지에 운반해 준다.
물러섬 없이 나아가 그곳에 다다르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경작은 이와 같이 이루어지며 불사의 열매를 가져다준다.
이 경작에 의해 모든 고뇌에서 해방된다.

『마음 받을 간다』 / 니와노 니치코(교성출판사)

이 계송의 배경에는 석존 재세 시 인도에서의 경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농기구인 쟁기를 가축에게 끌게 하여 논밭의 흙을 일구는 ‘이경(犁耕)’이 경작의 중심이었습니다.

석존께서는 논밭(마음)의 흙을 파내는 쟁기를 지혜에 비유하셨습니다. 소와 말이 끄는 힘이 쟁기로 전달되어 그 쟁기(지혜)가 충분히 작용하려면, 소와 쟁기를 연결하는 끌채라는 막대기의 제어가 꼭 필요합니다.

계송에 따르면 ‘부끄러움이 끌채’이므로, 부끄러워함으로써 마음 속에 내성이라는 쟁기의 날이 닿습니다. 내성을 잊었을 때에는 막대기로 쟁기 날에 달라붙은 흙을 털어 내서 지혜(쟁기)가 온전히 작용하도록 하면, 마음(논밭)이 잘 갈아지는 것입니다.

불교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

‘석존께서는 지금 막 경작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원숙한 방편을 써서, 대지를 경작하는 일만큼이나 마음에 신앙의 씨앗을 뿌려 키우고 열매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하셨던 것입니다.

불교학자인 마스타니 후미오(増谷文雄:1902 - 1987)씨는, 이 계송을 훌륭한 대기설법이라고 찬탄한 다음, 여기에 ‘불교의 전모와 본질이 흐린 곳 없이, 또한 구체적으로’ 설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씨앗이 마음의 토양에 떨어지면 근심없이 안온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또한 ‘모든 고뇌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포함해서 편안함을 구하는 모든 사람의 바람이 짧은 계송에 응축되어 있어서, 이 설법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희망과 앞을 향해 정진하는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을 한 번만 갈아서 고뇌가 사라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마음을 갈고 그때마다 자신의 불성을 발굴하는 일이 중요하며, 그것이 평온함으로 직결하는 것이 아닐까? - 그런 의미에서 이 불성의 자각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고찰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교성』 2024년9월호



Interview

「먼저 남부터」라는 보살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싶어요

캄보디아 · 프놈펜 법좌 솔 · 송행 (SOR SONGHENG)

송행씨는 캄보디아 입정교성회의 최초 멤버라고 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입정교성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까?

2005년 일본의 일련종(日蓮宗)의 승려가 주도하는 ‘묘법의 행진’이 캄보디아, 태국, 스리랑카의 상좌부 불교 승려들과 함께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열렸었습니다. 총 200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등근 북을 치면서 제목을 제창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그 평화행진 행사의 자원봉사자로서 참가했었는데 그 때, 일본의 불교도로서 일련종의 승려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행진에 참가하던 우메즈 레이지(梅津礼司 前교학위원)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입정교성회가 어떤 단체인지, 어떤 가르침인지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우메즈씨는 수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교성회 가르침과 학림(學林)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교성회의 신앙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메즈씨의 마음과 가르침의 훌륭함에 매료된 저는 ‘좀 더 교성회 가르침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에, 2019년 학림 해외 수양생(현재의 연주·해조음과 蓮澗·海潮音科)으로서 입림(入林)할 것을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솔·송행씨

입정교성회의 어떤 부분에 가장 매료되었습니까?

한 마디로 말하자면, ‘먼저 남부터’라는 가르침에 매료됨과 동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는 긴 시간에 걸쳐 내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먼저 남부터’라며 나의 몸을 지키고 나의 생활과 행복이 우선시되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메즈씨로부터 ‘먼저 남부터’라는 가르침을 들었을 때 “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을 배우면서 점점 ‘먼저 남부터’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고 바라며 실천하는 보살로서의 삶이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짐을 드는 것을 도와주거나, 문을 열어 드리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이라도 어떤 실천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림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학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화장실 청소입니다. 화장실 청소는 캄보디아에서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누가 시켜서 청소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청소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담당 강사님이 “청소는 내 마음의 먼지를 제거하는 수행입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 말대로 청소를 끝낸 후, 모두에게 깨끗해진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다는 기쁨과 동시에,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청량함 마음이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림에서의 2년간은, 저를 인간적으로 성장시켜 준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지금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학림에서 배운 것 중, 평소 생활속에서 마음에 두고 있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저는 매일 생활속에서 팔정도(八正道)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팔정도에는 정견(正見)·정사(正思)·정어(正語)·정행(正行)·정명(正命)·정정진(正精進)·정념(正念)·정정(正定)이라는 여덟 가지 진리에 맞춘 삶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과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는 사람과의 대립과 불화는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팔정도의 가르침을 살려서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팔정도는 서로 각각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가정에서는 부인의, 직장에서는 매니저로서 약 20명의 스태프들의 입장이 되어 상냥한 말, 배려 있는 말, 상대방을 공감하는 말을 사용하는 등, 정어(正語)의 실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놈펜 법좌에서는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2012년 3월에 학림을 졸업한 저는 캄보디아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7월에 프놈펜 법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법좌소



프놈펜 회원들과의 법좌에 참가하고 있는 송행씨(중앙 오른쪽 안쪽)

(장소)가 없어서 제가 지내고 있던 집에서 매월 한번 정도 회원들이 모여 법좌를 여는 정도였습니다. 그 후, 당시의 남아시아 전도구의 시마무라 마사토 시 포교원님(현재 우와지마 교성회의 교회장님)이 태국에서 3개월에 한번씩 법좌나 교성회 가르침을 공부회를 열어 주셨었습니다.

현재에도 한 달에 한번 법좌를 하는 한편, 교성지의 회장선생님 법화를 공부하여 각자가 느낀 점을 서로 발표하며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놈펜 법좌의 회원은 68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을 하면서 주임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만, 어떤 마음으로 역할에 임하고 있습니까?

2015년에 저는 주임 역할을 받았습니다. 역할이 있는 덕분에 회원들 되도록 할 수가 있으며, 여러분들과 서로 함께 법좌 수행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과의 연락과 정보 발신을 위해 SNS는 확실히 효율성이 좋고 아주 편리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되도록이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수행이며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는 보살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일이 바빠도 가능한 오토바이를 타고 회원들의 집을 방문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직접 보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일은 어떻게세요?” 하는 등, 근황을 물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행씨(오른쪽)와 그 가족들

니다. 주임으로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
다만, ‘주임’이란 부처님께서 주신 고귀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역할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조님, 회장선생님의 말씀 중에, 마음의 의지 처로 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개조님께서서는 16살 때 동경으로 향하는 기차 안
에서 ‘여섯가지 맹세’를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일
을 할 때에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표리 없이 일
을 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 인간은 다
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무심결에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만, 저는 항상 ‘표리 없이 일
할 것’이라는 개조님 말씀을 마음에 세기면서 회
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장선생님께서서는 항상 ‘정진 정진 죽을 때

까지 정진, 다시 태어나도 또 정진’이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정진에는 ‘이걸로 되었다’라는 한계는 없
으므로, 앞으로도 더욱 정진을 쌓아 나가 밝고, 상
냥하고, 따뜻한 인간이 되도록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래의 꿈은 무엇입니까?

주임 역할과 교사회 활동, 그리고 캄보디아의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끼 바치기 운동’의 추진
을 비롯해서, 현재 하고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기증하는 교육지원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앞으로도 더욱 충실하게 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
고 앞으로도 ‘먼저 남부터’라는 보살의 정신을 가슴
에, 캄보디아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진



학용품을 증정받은 초등학생들과 함께





부처님과의 깊은 연(緣)

부처님과의 연(緣)을 자각하면

Rev. Nikkyo Niwano
Founder of Rissho Kosei-kai



이와 같이 부처님과의 고귀한 「연」을 음미하면 자연스럽게 사는 방법이 바뀔 것입니다. 저는 눈이 많이 오는 니가타의 산촌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눈밭에서 뒹굴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조부님께서 품안에 저를 집어넣어서 퐁퐁 얼어버린 제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셨습니다. 그 조부님께서 늘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은 「가족이 모두 농사를 지어서 그저 밥만 먹고 산다면 굶餓이나 똑같다. 먹는 일이라면 굶餓이도 할 수 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가족 중 누군가 한 사람쯤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버릇처럼 해주신 이 말씀이 어린 저의 뇌리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지 저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가르침을 찾아 범화경을 만나게 되었고 입정교성회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본위이며 자기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기쁨을 맛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고민하는 사람을 상담해주었을 때, 상대방이 고마워하면 그때의 기쁨은 참으로 즐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행을 실천하는 것이 자신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모두 다 전세부터 부처님과 「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려면 상대방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세에서 수많은 부처님을 공양하여 대원을 세운 사람이다.」라고 바라보면 자연히 상대방을 존경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전세에서 세웠던 대원을 잊어버리고 부처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부처님과 연」을 생각해주었으면 하고 연이 닿으면 됩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한다.」를 권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 세계에 「나도 부처 상대도 부처」라는 관계가 퍼져나가면 이 세계가 그대로 평화경(상적광토)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마음에 새겨서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하여 부처님과 연을 더욱 더 깊이 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니와노 닛쿄 평성 범화집1 『보리의 싹을 틔움이라』 p.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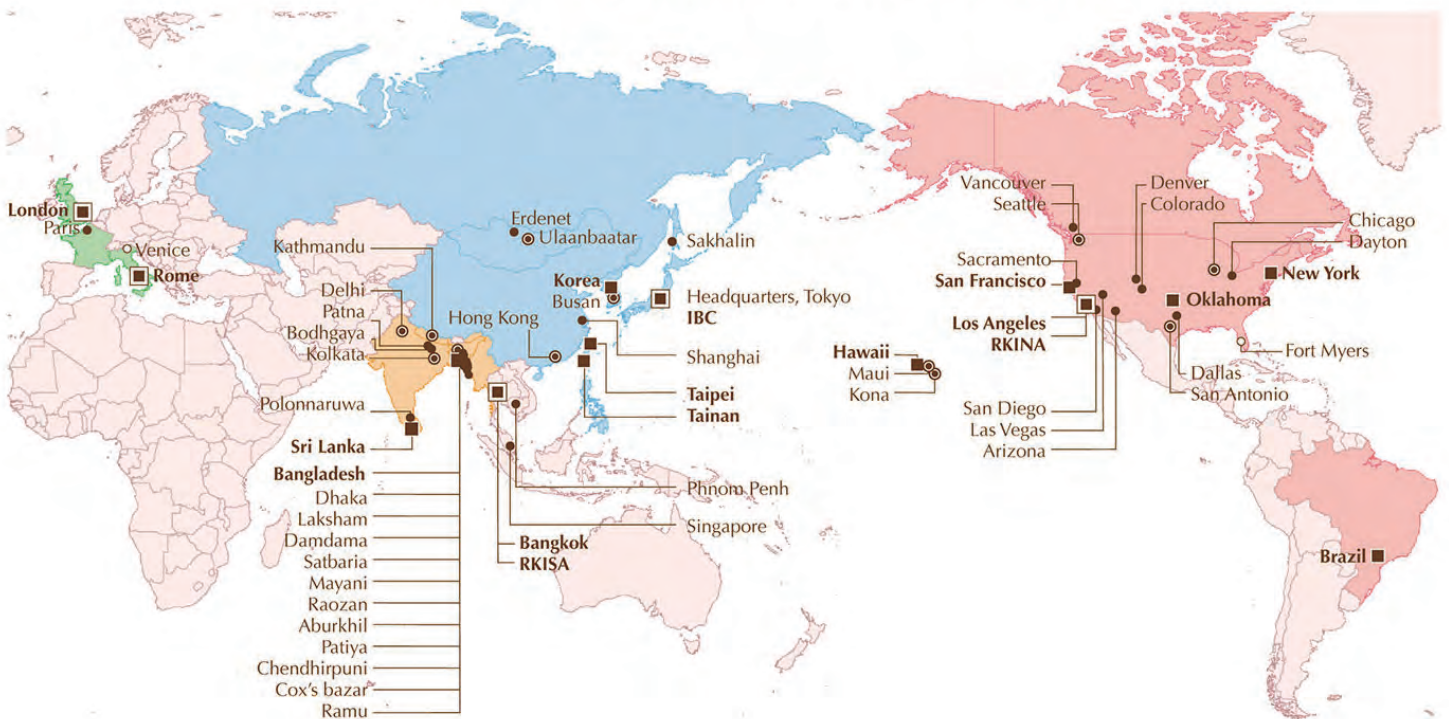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Make Every Encounter Matter



🌸 A Global Buddhist Movement 🌸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X

